

경제통상 핫이슈

韓-美 대미 전략 투자 1호 프로젝트 확정, 텍사스 엔시날 가스발전소 건설

- 22일(한국시간) 한국 정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전 보고를 통해 1호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지역 가스발전소 사업 추진을 확정
 - 전년도 한미 양국 무역·투자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패키지 추진을 위해 지난 11개월간 한미전략투자 특별법 제정 등 대미 투자 이행 체계 구축
 -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는 전략 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에 투입되며, 이번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는 2,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전략 투자의 첫 사례
- 엔시날 프로젝트는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총 6.3GW 규모의 발전시설 건설 사업으로, 223억 달러의 사업비(한화 약 30조원) 소요 예상
 - 초기 가스터빈 발전설비 1.4GW를 우선 구축한 뒤 고효율 복합화력 설비 4.9GW를 순차적으로 증설하는 방식으로, 경제성 점검 후 발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 생산 전력은 텍사스 전력시장에 판매하거나 인근 AI 데이터센터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한 판매 방식도 거론
 - 사업비는 당초 198억 달러 수준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거쳐 약 223억 달러에서 절충
- 원리금 회수 가능성과 수익배분 조건 등 '상업적 합리성'을 주요 쟁점으로 두고 양국 간 줄다리기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정부는 대미 전략 투자의 안전판 마련
 - 원리금 상환 이자율의 기준인 美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사업에 요구되는 수익률도 높아져 투자 원리금 회수 여부 등 높은 수준의 사업성 담보 장치 필요
 - 국회 대미투자 사전보고 이후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사업 중단·청산 시 한국 측 투자금의 100%를 우선 회수하도록 하는 청산우선권을 확보해 손실 위험을 최소화
 - 정부는 1호 사업 추진을 통해 향후 20년간 430~450억 달러 수준을 회수할 것으로 전망
- 더불어, 정부는 대미 전략 투자 후속 추진 계획으로 2개의 프로젝트를 추가 언급하였으며, 대형 원전 건설 사업(2호) 및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3호)을 세부적으로 검토 중
 - (원전 건설) 북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AP1000 6기, 한국형 원자로 APR1400 2기 건설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를 통해 美 원전 시장에 장기 사업 참여 기반 구상
 - * 웨스팅하우스 5~10% 지분으로 의결권을 확보(이사선임권은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웨스팅하우스 IPO 공모가 대비 10% 할인된 가격을 적용할 예정
 - (LNG 개발)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남부 니키스키까지 1,300km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LNG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검토 중

뉴스 큐레이션

경제·통상 뉴스

美 연준, 기준금리 0.25% 인상...3년 2개월 만의 긴축 조치

- 16일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 인상을 발표했으며, FOMC 위원 19명 중 18명의 연말 금리 예상치 중간값 평균은 4.1%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 원문 링크 : [WSJ\(9/16\), Fed Delivers First Rate Hike in Years With Unanimous Vote](#)

美 8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1.2% 상승...예상치 크게 웃돌아

- 16일 미 상무부는 8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의류·전자제품 및 주유소 매출 증가가 지표를 견인하며 미국 소비의 견조함을 재확인

※ 원문 링크 : [Reuters\(9/16\), Robust US retail sales underscore economy's resilience, inflation pressures building](#)

中 시진핑, 오바마 대통령 이후 11년 만의 국빈 방미

-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을 국빈 방문을 했으며, 양국 정상회담에서 관세를 비롯한 통상 현안과 인공지능, 희토류, 대만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

※ 원문 링크 : [Reuters\(9/23\), US says China trade truce extended as Trump welcomes Xi](#)

美 USTR, 2027년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 의견수렴 개시

- 14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내년도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 작성을 위해 미국 수출·투자를 저해하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의견을 10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발표

※ 원문 링크 : [InsideUSTR\(9/15\), USTR seeks input on next year's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美 USTR, 독일 약값 문제로 301조 공청회 개최

- 22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독일의 의약품 가격정책에 대한 301조 공청회를 개최하고, 독일의 낮은 약가로 미국이 신약 연구개발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

※ 원문 링크 : [USTR\(9/22\), Public Hearing Regarding Section 301 Investigation of Germany's Persistent Underpayment for Innovative Pharmaceutical Products](#)

뉴스 큐레이션

지역·산업 뉴스

美·덴마크·그린란드, 그린란드 내 미군기지 2곳 건설 합의

- 22일 美·덴마크·그린란드는 그린란드 내 미군기지 2곳 신설과 주둔 확대를 허용하는 3자 안보협정에 서명하고, 덴마크의 주권·영토 보전과 그린란드의 자결권을 명시

※ 원문 링크 : [연합뉴스\(9/23\)](#)

현대차, 美서 로보택시 본격 공급..."테슬라 사이버캡과 경쟁"

-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4분기 美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서 생산한 아이오닉5 기반 로보택시를 웨이모에 첫 공급하고, 향후 해외 서비스 확대도 추진할 계획

※ 원문 링크 : [뉴시스\(9/21\)](#)

고려아연, 美 제련소 프로젝트, 환경평가 통과..."사업 탄력"

- 21일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등과 추진 중인 74억 달러 규모 테네시州 통합제련소 '프로젝트 크루서블'이 핵심 환경 인허가 절차를 최종 통과했다고 발표

※ 원문 링크 : [연합뉴스\(9/21\)](#)

美 자동차 업계, 中 자동차 미국 시장 진입 차단 트럼프 대통령에 촉구

- 17일 미 자동차업계 6개 단체는 시진핑 주석 방미 시 中 자동차 기업 BYD가 동행하는 가운데 안보·경제적 위협을 이유로 중국 자동차의 판매·수입·미국 내 생산 제한을 유지해달라고 촉구

※ 원문 링크 : [Reuters\(9/18\)](#), [Auto industry urges Trump to keep Chinese automakers out ahead of Xi meeting](#)

삼성물산, 美 카이로스 파워와 차세대 SMR 협력 추진

- 22일 삼성물산은 美 카이로스 파워와 차세대 SMR 실증·상용화 협력을 위해 약 7천만 달러 투자를 추진하고, 테네시州 실증로 사업 참여와 향후 美 상용로 EPC(설계·조달·시공) 우선권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

※ 원문 링크 : [삼성물산 건설부문 홍보자료\(9/22\)](#)

보고서 톺아보기

K-의약품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 한국무역협회, <K-소비재 수출 확대 전략 : 의약품 수출 구조 분석 및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2026.9.9) 보고서 요약, 원문보기

- 2015년 이후 글로벌 의약품 교역액은 연평균 3.7%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고난도 제품 확대, 공급망 안정화 정책, AI 활용 확산이 주요 시장 흐름으로 나타남
 - (제품 고도화) 범용 제네릭* 가격경쟁 심화 속, 수익성 방어를 위해 흡입제, 서방형 주사제, 약물 기기 결합제 등 고난도 제품 개발·생산 확대로 기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 * 범용 제네릭: 특허 기간이 만료 후 동일한 주성분, 함량, 제형으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복제약
 - (공급망 안정화) 코로나19 이후 지정학적 갈등과 원료 수급 차질로 의약품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주요국 의약품 공급망 정책은 비용 효율성에서 안정성 관리 체계로 전환
 - (전주기 AI 활용) AI 기술 고도화에 따라 후보물질 발굴을 넘어 임상시험 운영, 공정, 허가·규제 대응 등의 영역으로 점차 확대
- 최근 10년간 한국 의약품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2.7%로, 이는 세계 의약품 교역 증가 속도를 크게 하회하였으며, 팬데믹 이후 수출 성장세가 확연히 둔화됨
 - 범용치료제(종합감기약, 소화제 등) 중심의 수출 구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고부가 치료제로의 포트폴리오 확장은 미흡하며 수출 품목 다변화도 제한적
 - 다만, 소비자 접점이 높은 비타민제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며, 유망 소비재로의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지난 10년간 연평균 3.5% 증가)
 - 우리나라 의약품의 3대 수출시장은 일본·베트남·중국으로, 유럽·미국 등 고소득시장 중심의 세계 의약품 수입 증가 흐름을 고려할 때 수출 다변화 및 집중도 개선 필요
-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지원사업을 제품 경쟁력 제고와 시장 진입 및 안착 단계로 연계하는 전(全) 주기 통합 정책 지원 필요
 - (①생산 품질 고도화)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진단
 - 개선 ➢ 제도화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 구축 및 데이터 기반 AI 실증 지원
 - (②시장 맞춤형 제품 차별화) 주요 수출시장별 소비자 수요 특징, 경쟁 제품 정보, 현지 유통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허가 대응까지 기업에 제공 필요
 - (③고소득시장 진입 장벽 해소) 고소득 시장에서는 단순 물량 확대보다 기술적 차별성을 갖춘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확대 및 품목-시장 단위의 세분화된 정보 제공
-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저가 제품의 물량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개발·생산 역량 확대와 제품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중심의 의약품 수출 구조 전환 필요

뉴스라인 스페셜

〈전문가 칼럼〉먹다 남은 수박도 환불해주면, 마트는 망하지 않을까?

8월 텍사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된 ‘택스 프리 데이(Tax-Free Weekend)’와 아이들의 ‘백 투 스쿨(Back-to-School)’ 쇼핑 시즌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갔다. 쇼핑의 열기가 가라앉고 집안을 정리하다 보니, 엉겁결에 샀지만 생각보다 손이 가지 않는 물건들이 꽤 눈에 띄었다. 결국 반품을 결심하고 마트의 규정을 살펴보니, 한국에 비해 반품 가능 기한이 90일(혹은 그 이상)로 매우 길뿐더러, 사실상 거의 모든 물건이 환불 가능하다는 점에 새삼 놀랐다. 물건을 챙겨 마트 환불 창구에 줄을 서서 기다리며 앞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 실로 기상천외한 풍경이 펼쳐졌다.



김창희 교수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Visiting Scholar,
Texas Christian University
Neeley School of Business)

꽤 파먹은 듯한 수박 반 통을 들고 서 있는 사람, 이미 충분히 입고 세탁까지 한 듯한 낡은 옷을 가져온 사람, 심지어 잉크가 꽤 닳아버린 필기구를 내미는 사람도 있었다. 한국의 유통 매장이라면 문전박대당하거나 언성이 높아질 법한 상황이었지만, 점원들은 아무런 실랑이 없이 그들의 카드를 긁어 환불 처리를 해주고 있었다. 포장조차 뜯지 않은 새 물건을 들고 간 내 차례가 되자, 점원은 그저 "이제 더 필요가 없어지셨나 보죠?"라며 가볍게 웃었고, 내가 "예"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1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환불 절차가 끝났다. 마트를 나서며 함께 반품 줄에 서 있던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이러면 마트가 남아나질 않겠는데? 블랙 컨슈머들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블랙 컨슈머를 더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야?" 아내의 걱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하지만 이 거대한 유통 공룡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경영학, 특히 ‘서비스 운영 관리(Service Operations Management)’의 관점에서 보면, 이 황당할 정도로 관대한 ‘묻지마 반품(No Questions Asked Return)’ 정책은 손실을 감수하는 자선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운영 전략이다.

첫 번째 비밀은 ‘구매 리스크 제거를 통한 전환율(Conversion Rate) 극대화’에 있다. 소비자가 지갑을 여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이 물건이 내게 정말 필요할까? 샀다가 후회하면 어쩌지?’라는 위험 회피 심리가 작동한다. 미국 대형 마트들은 묻지마 환불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소비자의 이 심리적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일단 카트에 담아. 별로면 언제든 가져와서 환불하면 되잖아"라는 무언의 메시지는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고 장바구니의 크기를 비약적으로 키운다. 반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비용보다, 반품의

두려움이 사라져 추가로 발생하는 막대한 매출 증가분이 훨씬 크다는 것을 데이터로 입증한 결과다.

두 번째는 반품을 처리하는 '역물류(Reverse Logistics) 비용의 마케팅 자산화'다. 반품된 물건을 회수하고 폐기하거나 재판매하는 과정에는 막대한 물류비용이 든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이 비용을 단순한 '영업 손실'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고객 유지(Customer Retention) 마케팅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듯 바라본다. 먹다 남은 수박을 환불받은 고객은 마트의 서비스에 압도적인 신뢰를 느끼게 되고, 다음 방문 시에는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고가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이나 대용량 제품을 망설임 없이 구매하게 된다. 즉, 반품 창구는 불만 고객을 처리하는 방어선이 아니라, 평생 충성 고객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마케팅 부서인 셈이다.

그렇다면 아내의 걱정처럼 악의적인 '블랙 컨슈머'의 문제는 어떻게 통제할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 알고리즘과 멤버십 락인(Lock-in)'이라는 방어 기제가 숨어 있다. 코스트코나 샘스클럽 같은 대형 매장들은 연회비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회원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관대한 환불 정책은 고객이 매년 기꺼이 연회비를 갱신하게 만드는 가장 큰 유인이다. 시스템은 고객의 모든 구매 및 반품 데이터를 추적한다. 만약 선을 넘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반품 패턴이 알고리즘에 포착되면, 마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 고객의 멤버십 갱신을 거절한다. 99%의 선량한 대다수 고객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주어 수익을 극대화하고, 1%의 블랙 컨슈머는 데이터로 정밀 타격하여 숙아내는 완벽한 운영 통제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아내의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미국의 대형 마트들은 먹다 남은 수박을 환불해 주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꺼이 환불해 주기 때문에 오늘날의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반품을 끝내고 다시 들어선 마트에서 둘째아이가 좋아할지 좋아하지 않을지 애매하지만 한 번 사보자고 하며 옷을 몇 개 구매했고, 철이 지나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맛이 없으면 환불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철 지난 쿨을 구매했다. 다행히 아이는 대부분의 옷을 잘 입었고, 쿨은 실제로 맛이 없었지만 환불을 하진 않았다.

한국의 유통 및 서비스 업계는 종종 1%의 블랙 컨슈머를 막기 위해 촘촘한 방어벽과 까다로운 규정을 세우곤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99%의 평범한 고객들마저 피로감을 느끼거나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마찰 비용(Friction Cost)'이 발생한다. 진정한 서비스 운영의 탁월함(Operational Excellence)이란 모든 손실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 고객을 믿고, 그들의 구매 저항을 완전히 낮추어 줌으로써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것, 미국 마트의 길게 늘어난 반품 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비즈니스의 지혜다.

주요 경제지표

● 美 주요 경제지표 캘린더

발표 일자	경제지표	실제	전망	이전
9월 10일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 MoM)	0.4%	0.4%	0.1%
↳ 8월 미국 생산자 물가는 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디젤 연료 가격이 24.1% 상승하며 흐름을 주도				
9월 11일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MoM)	0.4%	0.4%	0.1%
↳ 8월 미국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4% 상승하여 전월 0.1%에서 가속화하였으며 시장 예상치와 부합				
9월 17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Initial Jobless Claims, WoW)	196K	207K	206K
↳ 9월 둘째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0,000건 감소하여 196,000건으로 시장 예상치인 207,000건을 크게 하회				

출처 : Investing.com

● 주가 & 금리(미국)

- 연준이 3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추가 인상을 시사하면서 2년물 금리가 10년물보다 큰 폭으로 올랐으며, 증시는 유가 하락에 힘입어 상승 전환

구분	09.22	09.08	2W(% ,bp)	08.25	1M(% ,bp)	25.12.31	YTD(% ,bp)
S&P500	7,764.6	7,673.5	+1.19	7,677.3	+1.14	6,845.5	+13.43
국채 2년	4.75	4.40	+34.90	4.20	+55.00	3.47	+127.80
국채 10년	4.96	4.80	+15.10	4.64	+31.60	4.15	+80.20

출처 : Investing.com

● 국제유가(최종가 기준, 단위 : \$/배럴)

-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인도 정유사가 한국·일본과 경쟁적으로 걸프산 원유 확보에 나서면서 두바이유가 큰 폭으로 상승

구분	09.22	09.08	2W(%)	08.25	1M(%)	25.12.31	YTD(%)
Dubai	112.91	105.09	+7.44	93.00	+21.41	61.59	+83.33
Brent	99.25	97.92	+1.36	88.58	+12.05	60.85	+63.11
WTI	90.52	93.03	-2.70	82.36	+9.91	57.42	+57.65

출처 : 페트로넷

● 주요국 환율

-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로 달러 강세가 이어졌으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및 무역수지 부담이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

구분	09.22	09.08	2W(%)	08.25	1M(%)	25.12.31	YTD(%)
USD/KRW	1,353.0	1,340.4	+0.94	1,382.6	-2.14	1,440.6	-6.09
USD/JPY	157.5	153.5	+2.61	159.2	-1.11	156.7	+0.50
USD/CNH	6.699	6.706	-0.10	6.718	-0.29	6.976	-3.98
EUR/USD	1.145	1.163	-1.55	1.167	-1.94	1.175	-2.54
달러인덱스	100.60	98.79	+1.83	98.92	+1.70	98.32	+2.32

출처 : Investing.com, 한국은행

행사 알리미

한국무역협회 델러스지부, 멕시코 진출기업 통상 대응 세미나 개최

- 우리 지부는 오는 10월 관할지역인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멕시코 진출기업을 위한 통상 대응 및 실무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여 주요 통상 현안 공유 및 기업 대응 전략을 지원할 예정
 - 동 세미나는 USMCA 재검토, 한국-멕시코 정상회담 계시 FTA 재추진 논의 등 북미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기업 전략 수립 및 대응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 통상환경 분석을 비롯해 비자·영사 실무, 통관 단계의 관세절감 전략, 자동차부품 산업 정책 동향, 현지화 방안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
- 행사 정보 안내
 - 행사명 : 멕시코 진출기업을 위한 통상 대응 및 실무 전략 세미나
 - 일 시 : 2026년 10월 16일(금), 14:00~17:00
 - 장 소 : Grand Fiesta Americana Monterrey Valle (멕시코 몬테레이)
 - 참가신청 : [참가신청 바로가기 클릭\(무료\)](#)
-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및 발표자는 변경될 수 있음

시간		주요 내용	발표자
14:00-14:05	05'	개회사	한국무역협회 델러스지부
14:05-14:10	05'	축사	기아자동차 멕시코법인
14:10-14:40	30'	북미 통상환경 변화와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
14:40-15:00	20'	멕시코 진출기업의 비자 및 영사 관련 안내	주멕시코한국대사관
15:00-15:10	10'	Coffee Break	-
15:10-15:40	30'	멕시코 통관 시 관세 절감을 위한 전략과 유의 사항	PIE Consulting 홍성준 대표
15:40-16:00	20'	멕시코 자동차부품 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	멕시코 자동차부품협회(INA)
16:00-16:40	40'	멕시코 진출기업의 성공적인 현지화를 위한 제언	HL만도 멕시코법인
16:40-17:00	20'	질의응답 (Q&A)	-

본 뉴스레터의 구독 신청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구독 취소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